연변 출신 실력파 가수 김군룡의 파란만장 음악 려정기

—산골 소년 , 우유 배달부에서 무대 스타로
—고향의 아름다움 노래로 알리고픈 '연변사람'

연변 문화관광부문의 요청으로 고향 무대에 선 김군룡, 고향에서 불러준다면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여있다는 그를 만나 그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달 8월 15일과 16일 저녁에 연변대학 정문 왕훙벽 앞에서 '새로운 항해의 시작 — 연변에서 꿈을 펼치다'를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 이어 '9.3' 기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채로운 연변, 아름다운 복장' 민족복장 문화 전시 및 공연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이 행사들 무대에 낯익은 가수가 등장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 그가 바로 김군룡이였다.

"고향 연변의 축제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김군룡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무대를 압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고향의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과 관객들의 응원 속에서 찾아왔다. 특히 무대 아래에서 두 딸이 뛰여다니며 "저기 우리 아빠예요!"라고 자랑하던 모습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가족이 함께해주니 감회가 새로웠죠."

일전 기자는 행사차 연변을 방문했다가 고향에 머물며 간만의 망중한을 즐기는 김군룡가수를 만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의 음악 려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좋아 시작한 음악이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연 그는 주마등처럼 스치는 추억에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토해냈다. 지나온 길은 항상 치렬하고 억척스러웠으며 때론 힘들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포기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또다시 이 길을 선택해 걷고 있는 지금, 그는 이젠 행복해졌을가?

◆ 손풍금에서 미술로, 그리고 다시 음악으로 이어진 예술적 려정

김군룡의 예술적 려정은 평탄치 않았다. 그는 왕청 시가지에서도 멀리 더 가야 나오는 대흥이라는 작은 산간마을에서 태여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손풍금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권유로 6살 때 잠간 손풍금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배운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제 음악 인생의 시작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음악보다 미술에 더 끌렸다. 대흥에서 동진으로 올라와 학교에 진학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가수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되려 그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미술과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며 미술교원이 되는 꿈을 꿨다.

"대학 시절 문예부 부장으로 활동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당시만 해도 노래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로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탓에 근 10년 동안 친척집을 전전하며 그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밤에는 노래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런데 한편으론 또 인생을 길게 보면 어떤 것을 꾸준히 해나갔을 때 노력은 어떻게든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

네살 반, 한살 반 되는 두 딸애가 아빠의 무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낸다고… 그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그를 음악으로 이끈 계기가 되였다.

◆ 미술교원의 꿈에서 음악인의 길로

그 계기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 왔고 김군룡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평소 그의 재능을 주목하던 북경의 한 소속사 대표의 제안으로 제13회 전국청년가수TV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류행음악그룹 1등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술교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갔어요." 그는 붓대 대신 마이크를 잡았다.

◆ 빛과 그림자… 그리고 번아웃

2005년 음악계에 데뷔한 그는 각종 무대와 행사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인츰 〈신아리랑〉, 〈비상〉 등 히트곡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고 2008년에는 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리소룡전기》의 주제곡 〈주먹〉(拳头)을 부르며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다녔다. "음악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건강 악화와 사업적 어려움까지 겹치며 그는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했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급증하고 자신감을 잃어 모자를 쓰고 다니던 습관이 지금은 패션처럼 굳어버렸다. "오늘도 습관처럼 모자를 쓰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웃었다.

지금은 롱담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세월 동안 김군룡은 온몸으로 좌절하고 방황하고 무너졌던 것이다. 그걸 지켜보던 안해가 "내가 나가 벌면 되니 힘들면 포기해도 괜찮아."라며 묵직한 위로를 건넸다. 2009년, 김군룡은 모든 걸 접고 안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음악이랑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그는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아침엔 연길의 골목을 다니며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엔 미술계 동창이 꾸린 자그마한 광고회사에서 미술 디자인 일을 돕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을 연길에서 살다 북경에 다시 가게 되였는데 그때도 음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 "북경 거리에 나가 고기를 구워 팔았어요. 예전에 함께 무대에 섰던 댄스팀 친구들이 마이크와 음향을 들고 와서는 저보고 노래하면서 팔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더 잘 팔리던데요?"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원한 팬인 안해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가 우유 배달을 할 때 안해는 김밥을 만들어 팔았고 북경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옆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면서 항상 그의 곁을 지킨 건 안해였다. 만난 지 19년째, 두 사람은 힘든 시절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왔다.

그는 그 시절을 '암흑기'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과 가족의 지지가 그를 지켜주었던 셈이다.

◆ 번아웃 극복하고 다시 찾은 음악

길거리에서 고기를 굽는 김군룡의 모습을 길가던 전 소속사 사장이 우연히 보게 되였고 그는 김군룡을 찾아와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너의 지금 모습이 초라해서 이렇게 슬픈 게 아니라 음악을 해야 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그의 복귀를 희망했다.

그래도 놓을 수 없었던 음악의 끈, 몇달의 고민 끝에 그는 7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바로 2018년, 아리랑그룹으로 발표한 〈옆집 타잔〉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는 다시 전국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땐 아마 나이도 어렸고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설펐을지도 모르죠." 공백기를 겪으며 단단해졌고 더불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밝힌 김군룡은 이젠 행복을 이야기 하고 싶어 했다.

"지금은 행복해요. 음악을 할 수 있고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고향 연변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고향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한다.

"고향에서 불러준다면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여있어요. 저의 음악이 고향을 알리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영광이죠."

◆ 가수 김군룡, 그리고 인간 김군룡

무대 우에서 빛나는 스타 김군룡, 노래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인이지만 그 역시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정겨우며 고향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는 게 좋은 평범한 '연변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진하게 스며들어있다.

도전하고 싶은 음악 장르도, 만들고 싶은 컨텐츠도 많다는 '욕심쟁이' 김군룡은 "앞으로도 꾸준히 음악을 하고 있을 거구요, 연변의 문화를 노래하는 음악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가족과 고향, 음악이 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나갈 겁니다."라고 말한다. 가수 김군룡과 인간 김군룡, 두 얼굴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음악 세계가 그래서 더없이 기대된다.

/ 김가혜기자

영화 《731》

개봉 첫날 흥행 수익 3억원 돌파

영화 《731》이 9월 18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개봉되였다. 인터넷 플래트홈 데이터에 의하면 9월 18일 20시까지 영화 《731》의 당일 흥행 수익은 3억원을 돌파했고 총 흥행 수익(예매표 포함)은 4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 단일 일자 상영 회수는 연 26.9만회를 돌파하며 중국 영화 사상 단일 작품 단일 일자 최다 상영 기록을 달성했다. 여러 지역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에 따르면 영화 《731》의 첫 상영시간은 9시 18분으로 확정되였으며 상영표에 '경종장명'(警钟长鸣)이 함께 표기되였다.

이 영화는 항일전쟁 승리 전야에 중국 침략 일본군이 전세를 돌이키기 위해 흑룡강 할빈 평방구지역에서 세균전 연구를 벌여 백성들을 학살하고 인체실험을 자행한 만행을 주로 그렸다.

영상은 력사의 증언이자 길이길이 울리는 경종이다. 침략자들은 진상을 은폐하려 시도했지만 력사를 파헤치려는 중국인민의 결심은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영화 《731》은 17일 저녁 장춘에서 시사회를 개최했다. 감독 조림산은 이번 창작 과정에 장장 6년간 여러 나라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력사의 새로운 차원을 발굴해냈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장춘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고 조림산이 감독을 맡았다. 영화에서 소상인 왕영장 등은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부대의'특설 감옥'에 강제로 끌려가 "건강검진과 방역 연구에 협조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일본군의 허위 약속에 속아 동상실험, 독가스 실험, 생체해부 등 극단적인 학대를 겪게 된다.

시사회에서 영화 《731》의 창작에 대해 조림산은 또 이 영화는 이왕의 같은 류형 작품들이 '동상실험', '인체실험' 등 범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력사 속 '인간의 존엄성과 곤경에서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에게 이 력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저 했다고 말했다.

"내가 찍은 것은 영화가 아니라 력사적 증거라고 생각한다." 조림산은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평화 애호가들을 단합시키고 이 력사가 더욱 깊이 기억되며 평화의 리념이 더 널리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중앙방송

연변

2026년 전국 사회구역 음력설야회 분회의장으로

연변이 2026년 전국 사회구역 음력설야회 분회의장으로 선정되였다.

중국사회구역발전협회, 북경요양공익기금회, 중국사회사업련합회, 중국로령사업발전기금회에서 손잡고 주최하는 이번 야회는 '만가의 불빛, 행복한 보금자리'를 주제로 '인민이 기획하고 인민이 공연하며 인민이 평가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문화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정서를 다질 수 있는 정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조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변과 광동성 무명시, 운남성 문산주 구북현 등 세 지역이 첫번째 분회장으로 선정되였다.

주최측은 전국적으로 정식 공연 종목 모집을 시작할 예정, 3만개 이상의 사회구역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참가하는 주민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변이 수많은 후보 도시를 제치고 전국 사회구역 음력설야회 분회의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문화관광자원과 더불어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공존하고 인민이 단결하며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 분위기 덕분이다. 연변은 자연과 인문학적 보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립체적인 보고'이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두만강 류역의 생태경관을 아우르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바로 이번 사회구역 음력설야회 무대가 전하고저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따뜻한 가치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0일에 북경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연변은 문화관광 홍보 영상을 통해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민속가무, 특산물, 음식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선보였다.

주최측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사회구역 음력설야회는 '과학기술로 지역 문화에 활력 불어넣기'를 목표로 전 과정 디지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무대를 맡기고 프로그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따뜻하고 질 높으며 영향력 있는 전국적인 대중문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야회의 주회의장은 북경시 조양구이다. 야회는 '특색 있고 현실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민간 우수 종목들을 모아 2026년 설 련휴 기간 황금시간대에 CCTV-12 채널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 종합